“매일 다른 모습…인생은 구름같아요”

고정희 화백 초대전, 11~17일 무등갤러리
‘연못의 이야기’ ‘노래하는 오월’ 등 40여점
“80넘은 인생 그림은 생명” 광주여성미술사 산증인

고정희 화백

‘구름속에 희망’

86세 노(老)화가와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건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단어들이었다. 시종일관 유쾌하게 대화를 이끌어간 그는 매일 아침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는 게 너무도 행복하다고 했다. 80 넘은 인생을 살아오자면, 우여곡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터다. 그 역시 ‘그림’에 지탱하며 힘든 삶의 굽이굽이를 넘어왔고,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다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거라고 했다.

고정희 화백 초대전이 11일부터 17일까지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갤러리가 진행한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기획전으로 그의 11번째 개인전이다.

‘인생은 구름같아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4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근작과 함께 1990년대부터 그의 화업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들이 골고루 나왔다.

올해 작업한 연작의 제목이기도 한 전시 주제는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창문 너머로, 습관처럼 구름을 바라보다 떠올렸다. 매일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며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구름을 볼 때 그게 ‘인생’ 같다는 생각을 했고 삶의 희로애락을 느꼈다.

‘인생은 구름 같아요’ 시리즈는 반추상 느낌의 작품이다. 자유롭게 표현된 구름의 형세는 리듬감과 율동감을 부여하고, 구름이 만들어내는 온갖 형상들은 화폭 위를 질주한다. 집안에 머무는 생활은 자연스레 삶을 돌아보게 했다. 백여개가 넘는 작은 원들을 무수히 그려넣은 ‘세월의 조각’은 행복했던 기억, 슬펐던 기억, 좋았던 사람, 싫었던 만남 등을 떠올리며 삶을 반추한 작품이다.

고 화백의 작품에도 꽃과 풍경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 평범한 소재를 풀어내는 방식이 독특해 눈길을 끈다. 사실적인 묘사 보다는 대상의 특질을 포착해 비구상의 느낌을 부여하며 색다른 이야기를 건넨다. 이런 경향은 광주사범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추상화가 고(故) 강용운 화백의 영향이 컸다. 정형화된 규칙보다는 자유롭고 유연한 터치와 조형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려 늘 고민했다.

그림과 관련해 그의 마음에 남은 또 한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천경자 화백이다. 당시 사범학교 교사로 학교앞 논두렁에서 그림을 그리던 천 화백은 곁에 쪼그려앉은 소녀에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느냐 묻고는, 광주사범학교에 가면 미술부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은 소녀의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꿈을 이루었다.

고 화백의 작품에서 가장 개성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독특한 ‘색감’이다. 유화 물감을 쓰기는 하지만 두텁고 묵직한 느낌 대신,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도록을 받아들 때면 색감이 궁금해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노래하는 오월’, ‘아름다운 오월’, ‘연못의 이야기’ 등이 그런 경우다.

1997년 독일 개인전 당시 찾았던 카셀 도큐멘터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후 작업 방향을 고민하며 자신만의 색을 찾으려 노력했다.

고 화백에게 그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삶이 힘들 때 그는 동앗줄처럼 그림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았다. 동명여중, 광주여고 등 여러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그는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되자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화업을 이어갔다.

그는 광주여성미술사(史)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힘든 여건 속에서 작업하는 동료들과 광주전남여성작가회를 꾸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후배들에게 거울이 된다.

2018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후로는 그림 그리는 게 더욱 애틋해졌다. 몸은 예전같지 않지만 매일 매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붓을 든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환경보호 ‘삼총사의 대모험’

놀이패신명, 지역아동 초청 1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이들을 위한 환경 뮤지컬이 열린다.

놀이패신명(대표 정찬일)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지역아동들을 초청, 환경뮤지컬 ‘삼총사의 대모험’〈사진〉 공연을 펼친다.

이날 선보일 뮤지컬은 우리에게 친숙한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광주천, 국립공원 무등산 등 광주의 자연유산을 배경으로 기후위기와 물 오염, 각종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기획됐다.

남해바다 용왕이 중병에 걸리자 거북이는 무등산에 사는 토끼의 간을 찾으러 간다. 하지만 병의 원인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닷물이 오염이라는 걸 깨닫고 우여곡절 끝에 무등산 장불재의 맑은 물을 얻게 돼 용왕의 병을 낫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의 의상, 소품 등은 폐품으로 제작해 의미를 더했으며, 공연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결합해 선보이며 어린이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놀이패 신명은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등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내용을 담은 공연을 꾸준히 선보여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환경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았다. 무료 관람. 문의 062-527-72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아름다운 첼로 선율 ‘같이의 가치’

광주첼로아카데미앙상블, 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광주첼로아카데미앙상블〈사진〉 제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극장에서 열린다.

‘같이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지치고 불안한 일상을 여덟대의 첼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로 치유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레퍼토리는 하이든 ‘현악사중주 황제’, 차이코프스키 ‘종교합창’, 드보르작 ‘왈츠’, 베르디 ‘여자의 마음’ 등이다. 또 게오르크 골터만의 ‘로망스’, 슈만 ‘트로이메라이’, 클라우스 바델트의 ‘캐리비안의 해적’ 등도 연주한다. 이날 공연에는 박지호(풍암고 1년)군과 최필립(상무고 1년)군, 빈체로 중창단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창단한 광주첼로아카데미앙상블은 문맹권 단장을 중심으로 악장 김황균, 단원 조혜원·김가영·이윤서·허연희·김지선·이소연·박소현 등으로 구성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새색시’ ‘열두 띠’…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문화

‘향연, 초방 아트 프린트’전, 20일까지 광주 갤러리 포도나무

서울 초방책방은 신경숙 대표가 지난 1990년 12월 25일, 쌍둥이 딸 초롱이, 방실이의 이름을 따 문을 연 그림책 서점이다. 책방과 같은 이름으로 그림책도 출간한 초방책방은 국내 출판사로는 최초로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논픽션 부문 우수상(지하철은 달려온다)을 받았고 신 대표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초방책방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 ‘향연, 초방 아트 프린트’전이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신 대표를 기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울 초방책방에서는 ‘기억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에서는 초방에서 출간된 그림책 가운데 ‘한국 전통의 미감’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10권의 아트프린트를 만날 수 있다. 전시되는 그림책은 ‘경복궁’, ‘까막나라에서 온 삽사리’, ‘꽃향기에 나비 날고’, ‘도산서원’, ‘봉산탈사자춤’, ‘새색시’, ‘수궁가’, ‘심청가’, ‘열두 띠’, ‘한조각 두조각 세조각’ 등이다.

전시작들은 아름다운 활옷과 장신구, 전통 나무 가구, 민화, 전통 건축, 놀이문화 등 우리가 간과하는 전통의 면면으로부터 새롭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초방만의 방식을 접할 수 있는 그림책 들로 삽화는 한 장 한장이 모두 마음에 깊이 남는다.

월·화 휴무, 문의 062-655-79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추상미술 강용운·양수아’

광주시립미술관, 11일 세미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11일 오후 3시 2021 학술세미나 ‘한국 추상미술의 또 다른 선구자, 강용운과 양수아’를 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용운(1921~2006)과 양수아(1920~1972)를 중심으로 광주 추상미술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와 역사적 맥락에 대해 논의한다.

강용운과 양수아는 한국 중앙화단에서 앵포르멜이 전개된 1957년에 앞서서 1940년대 후반에 비정형 형식을 선보인 추상미술의 선구자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작업은 그동안 심도 있게 조명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세미나에서는 국민대 김희영 교수가 ‘한국 추상화 형성의 여정 : 새로운 현재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명지대 이태호 교수와 조은정 고려대 교수가 각각 ‘양수아의 삶과 예술에 대한 재검토 -1950년대 앵포르멜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전후 추상미술의 성행과 강용운’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사회는 조인호 광주미술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김복기 아트인컬처 대표,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 질의자로 참석한다. 한편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용운, 나를 춤추다’전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613-712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건희 기증관’ 서울 종로 송현동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개관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유력 후보지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7141.6㎡ 중 일부(9787㎡)를 기증관 건립 부지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송현동과 용산 부지 2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송현동 부지는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협력하기 쉽고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송현동 부지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보 10분 거리 내 20여 개 박물관·미술관, 경복궁, 인사동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도 많아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됐다. 송현동 부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장소성’, ‘문화예술 연계성’, ‘접근성’, ‘부지 활용성’ 등 6개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체부는 이건희 기증관을 연면적 3만㎡ 규모로 건립해 기증품을 소장·전시하면서 융·복합 문화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2027년 완공·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